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11월 23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태지역 여성폭력근절과 성인지 예산의 발전적 방향을 논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태 개발협력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11월 23일(월)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i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룸에서 아태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태지역 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태지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인지 예산을 주제로 다룬다.

「아태 개발협력 포럼」 개최

- 일시 : 2009년 11월 25일(수) 09:00 - 15:00
- 장소 :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 룸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사전예약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예약문의 : 3156-7175/예약마감 : 11월 24일(화))

□ 해외초청자 미디어 취재 지원

-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 초청자 개별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번 포럼과 관련하여,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래 첨부한 해외초청자 프로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가능 시간과 해외초청자 안내>

24일 16시-18시 사이

치트라와티 부초리 (인도네시아 국가발전계획국 성인지예산자문관)

이본 콜코란-난테즈 (호주 플린더대학 교수)

25일 4시-5시 30분 사이

텔마 케이 (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회개발국 국장)

치트라와티 부초리 (인도네시아 국가발전계획국 성인지예산자문관)

테레시타 실비아 살루드 (필리핀 국가여성역할위원회 부위원장)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aeri2008@kw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룸에서 아태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태지역 개발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태지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인지 예산을 주제로 다룬다.

-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점검하고, 아태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8년 2월 “Unite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2008-2015” 캠페인을 발족하여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고, 금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교서를 발표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0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성별과 무관해 보이는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양성평등 목적 뿐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 주제발표에 앞서 텔마 케이 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회개발국 국장이 기조강연에 나서며,

- 세션 1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세션 2에서는 성인지 예산과 원조의 효과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패널토론 시간에는 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와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합류해 포럼의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아태 개발협력 포럼」은 향후 아태지역의 여성폭력근절 방안과 성인지 예산 시행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간 아태지역과 꾸준한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태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연구교류의 증진이 기대된다.

별첨 1. 해외초청자 프로필

별첨 2. 프로그램

별첨 1. 해외초청자 프로필

1. 이본 콜코란-난테즈 (호주 플린더대학 교수)

이본 콜코란-난테즈 박사는 호주 남부의 플린더스 대학의 교수이자 여성학과와 개발학 센터가 공동 임명한 대학원 과정의 장으로 재직 중이다. 콜코란-난테즈 박사는 여성학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네스코 여성학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이다. 지난 15년간 콜코란-난테즈 박사는 중아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와 브라질과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해 왔으며 국제연합(UN)을 포함한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UNESCAP),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과 유엔교육과학 문화기구(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와 기타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의 고문으로 활동해왔다. 그녀는 또한 앞서 언급된 국가들의 여성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였다. 콜코란-난테즈 박사는 현재 국제학과 여성학을 가르치지만 그녀의 주요 연구 분야는 탈-공산주의 국가와 과도국에서의 성(gender)과 국제정치, 성과 개발, 그리고 성과 정치이다.

2. 치트라와티 부초리 (인도네시아 국가발전계획국 성인지예산자문관)

치트라와티 부초리씨의 주요 연구 분야는 성인지예산, 지역발전, 성주류화, 그리고 정부 통치와 여성의 참여 등이다. 그녀는 25년 이상 계획, 관리, 역량강화, 사회와 성(gender) 연구, 그리고 지역 계획과 개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예로 그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카르타 소재 세계은행의 사회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성평등 관련 사항들을 감시하고 진행상황을 평가하며 대출과 보조금 관련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국가 성 코디네이터 (Country Gender Coordinator)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국가와 여성 지위 발전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국제적인 무대로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WB)의 환경 및 사회 개발부와 금융 및 빈영 부문부와 같은 국제 기구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그녀는 현재 인도네시아 국가발전계획국의 성인지예산자문관으로 활동중이며 프리랜서로서 자카르타 소재 세계은행과 정부 혁신 지원 프로젝트 II

(Governance Reform Support Project II)에 다양한 전문적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비라다 쏘쓰와디 (태국 치앙마이대학 교수)

비라다 쏘쓰와디 교수는 현재 태국 치앙마이대학 법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여성학 또한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치앙마이 대학의 여성학 프로그램 (현 여성학 센터)의 창립자이며 그녀는 민법, 페미니스트 법률학, 법과 사회 등 법과 여성과 연관된 여러 강의들을 가르친다. 그녀는 수업 외에도 “태국 페미니스트 리뷰 (2008)”, “인신매매 (2007)” 등 여러 저서들을 발간하였다. 더불어 그녀는 사회 변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녀는 여성, 법, 그리고 농업 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포럼 (APWLD)과 동일 분야에 관한 비정부 지역 기구인 FORWARD의 설립자일 뿐 아니라 APWLD의 회장이자 이사회의 임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녀의 용기 있는 활동들과 사회적, 학문적 기여에 대하여 그녀는 미국국무부로부터 2007년에 “용기 있는 여성 (Woman of Courage)”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2년에는 태국 총리로부터 “올해의 여성 (Woman of the Year)”을 수상하였다.

4. 텔마 케이 (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회개발국 국장)

텔마 케이씨는 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회개발국 국장으로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의 성과 개발 (Gender and Development) 부서를 이끌기도 하였다. 그녀는 특정 사회 정책과 사회 보호에서의 사회 발전 이슈들을 다루었고 특별히 성(gender), 노령화, 그리고 보호 문제에 집중하였다. 더불어 그녀는 상을 수상한 UN의 발간물인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저서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녀는 각종 지역, 나라, 국제무대에서 행해지는 컨퍼런스를 누비며 국제연합을 대표하였고 학술계, 국제연합 여성지원위원회 회의, 그리고 미국은퇴자협회(AARP)와 유엔사회개발연구원(UNRISD)의 국제회의 등에서 기조 연설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그녀는 또한 아시아공과대학 (전기 환경 대학), 국제노화협회 (INIA) 그리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세계교육계획기구(IIEP)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5. 테레시타 실비아 살루드 (필리핀 국가여성역할위원회 부위원장)

테레시타 실비아 살루드씨는 필리핀 대통령실 산하 기관인 국가여성역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그녀는 동시에 필리핀 예산관리부에서 예산관리 전문가 팀장(OIC-Chief Budget & Management Specialist)직과 예산관리 전문 관리인 (Supervising Budget & Management specialist)직 또한 겸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관심 분야는 여성과 개발, 정책 연구, 관리 및 감독 등을 포함하며 그녀는 관련 분야에서 약 30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해외 원조 프로젝트 이행, 프로젝트 인원 및 예산 관리, 자금 요청 분석 등이다. 그녀는 또한 국제무대에서도 각종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 국제연합 여성지원위원회, 유엔개발계획 등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성(gender), 개발, 성인지예산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별첨 2. 프로그램

09:00-09:20	등 록	
09:20-	개 회 식	<p>사 회: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p> <p>개회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p> <p>축 사: 김학수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p> <p>기념사: 악토르 갈반 (주한 도미니카 대사)</p> <p>“11월 25일 세계여성폭력근절의 날의 의미”</p>
	기조강연	텔마케이 (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회개발국 국장)
	세션 1	아시아 태평양의 여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p>이본 콜코란-난테즈 (호주 플린더대학 교수)</p> <p>"여성에 대해: 동티모르에서의 폭력, 불명예 그리고 화해"</p> <p>비라다 쏜쓰와디 (태국 치앙마이대학 교수)</p> <p>"태국의 현대사법구조와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p> <p>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한국의 사례"</p>
	세션 2	성인지 예산과 원조의 효과성
		<p>테레시타 실비아 살루드 (필리핀 국가여성역할위원회 부위원장)</p> <p>"필리핀의 성인지 예산: 성주류화를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접근법"</p> <p>치트라와티 부초리 (인도네시아정부 국가발전계획국의 성인지예산자문관)</p> <p>"이론에서 실행으로: 성인지 예산 실행과 인도네시아의 경험"</p> <p>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p>
12:30-14:00	오찬	
14:00-15:00	패널토론	<p>이본 콜코란-난테즈 (호주 플린더대학 교수)</p> <p>비라다 쏜쓰와디 (태국 치앙마이대학 교수)</p> <p>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테레시타 실비아 살루드 (필리핀 국가여성역할위원회 부위원장)</p> <p>치트라와티 부초리 (인도네시아정부 국가발전계획국의 성인지예산자문관)</p> <p>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p> <p>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p>
15:00	종합토론 및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